"광주에서 더 큰 꿈 생겨…내 기록 깨고 올림픽 가겠다"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한국경영 두번째 준결승 간 박수진

열렬한 응원속 준결승 경기
8명중 7위…결승행은 실패
이주호·백수연도 준결승 진출

"언젠가는 봐주시겠지 하면서 뒤에서 열심히 했어요."

지난 2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200m 준결승이 열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박수진'의 무대였다.

8번 레인에서 레이스를 펼친 박수진(20·경북도청)은 100m를 1위로 통과하며 관중석을 열광시켰다. 박수진은 인생 최고의 환호 속에 남은 100m의 물살을 갈랐지만,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7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광주 대회에서 김서영(25·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경영 선수가 됐다. 이와 함께 이 종목 한국기록(2분06초67) 보유자 안세현의 그늘에서 벗어나 '박수진'이라는 이름도 알렸다.

대표 선발전에서 안세현을 제치고 태극마크를 단 박수진은 안세현이 광주수영대회 홍보대사로 경기장을 찾았던 이 날, 준결승 출발대에 서면서 더 주목을 받았다. '특별한 행운'도 있었다.

박수진은 이날 오전 열린 예선에서 2분10초73의 기록으로 전체 33명 중 17위에 올라 16명에게만 주어지는 준결승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11위 호주 선수가 기권하면서 예비명단에 있던 박수진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박수진은 "준결승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다. 정말 좋았다"며 "극적으로 올라와서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다.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부족한 거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가슴 떨린 첫 준결승 소감을 밝혔다.

박수진에게 이번이 세 번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앞서 두 번의 대회에서는 한 뼘이 부족해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안세현이 왔다'는 취재진의 이야기에 "경기만 신경 써서 언니가 온 걸 몰랐다"며 놀란 표정을 지은 박수진은 안세현의 유명세에 가려져 있었던 것에 대해 "주목 못 받아도 그래도 언젠가는 봐주시겠지 하고 했던 것 같다. 열심히 뒤에서 했다"고 말했다.

'오늘은 주인공'이라는 말에는 손사래를 치며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고 운이 좋았다"고 웃었다.

박수진이 24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200m 접영에서 역영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choi@

25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여자 평영 200m 예선에서 백수연이 역영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손사래는 쳤지만 이날 박수진은 관중석의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은 '주인공'이었다.

박수진은 "응원 소리가 다 들렸다. 진짜 힘이 많이 됐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했다"며 "이 대회를 뛰기 전까지는 준결승이 목표였다. 준결승을 행운으로 얻었지만 그래도 한 단계 성장한 것 같다. 올림픽을 한 번도 못 나가봤다. 이제 내 기록을 깨서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다"라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광주에서 꿈을 이루고 더 큰 꿈에 도전하게 된 박수진은 "광주에서 대회가 열린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 선수들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 다들 열심히 했다"며 "그리고 수영이 생각보다 재미있는 종목이다. 많은 분들이 즐기시면서 인기 있는 종목이 되면 좋겠다. 많은 사랑과 응원 감사하다"고 광주 시민들에게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수진을 시작으로 25일에는 남자 배영 200m 이주호(24·아산시청)와 여자 평영 200m에서 백수연(28·광주시체육회) 잇달아 준결승 진출을 이뤘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19세 밀라크 '수영황제' 펠프스 기록 깼다

남자 접영 200m 세계 신기록

1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의 세계기록을 헝가리의 10대 소년이 깨뜨렸다.

만 19세의 크리슈토프 밀라크(헝가리)가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남자 접영 200m에서 세계기록를 세웠다.

이날 밀라크는 남자 접영 200m에서 1분50초7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접영 100m 종목에서 만 17세의 나이로 은메달과 함께 세계주니어 신기록(50초62)을 세우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밀라크는 이날 자신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번째 금메달과 함께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밀라크는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펠프스가 달성한 1분51초51를 무려 0.78초나 앞당겼다.

이날 결승에서 밀라크는 디펜딩 챔피언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채드 르 클로스에 0.33초 뒤진 52.88초로 100m구간을 통과했다.

펠프스가 로마대회에서 세계기록을 세울 당시 52초88만에 지났던 100m 구간을 르 클로스는 52초55, 밀라크도 52초88만에 통과해 세계기록 탄생에 기대감을 높였다.

100m 구간 이후 스퍼트를 펼치며 르 클로스를 따라 잡은 밀라크는 독주했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르 클로스는 150m 구간까지 4위를 달리던 일본의 세토 다이야(1분53초86)에게 2위를 내주며 1분54초15의 기록으로 3위에 머물렀다.

밀라크는 "경기 전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이젠 내 이름을 알렸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대회 접영 100m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밀라크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 대회 7관왕을 노리는 카일렙 드레셀과 접영 100m에서 우승을 놓고 다툰다. 남자 접영 100m는 26일 예선과 준결승, 27일 밤 결승이 펼쳐진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다이빙 金 독식 中 경영서도 강세

쑨양 2관왕·쉬 지아위 금메달
다양한 선수들 기록 갈아치워

중국이 '수영의 꽃' 경영에서도 다이빙 못지 않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메달 13개가 걸린 다이빙에서 금메달 12개를 쓸어 담았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200·400m에서 2관왕을 차지한 '중국 수영의 간판' 쑨양을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고 잇따라 대회기록과 세계주니어기록, 아시아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배영 100m에서 중국의 쉬 지아위는 준결승에서 세계기록에 0.32초 모자란 52초17의 기록으로 대회기록을 세웠다. 쉬 지아위는 다음날 열린 결승에서는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만 17세의 양 쥔시안도 지난 22일과 23일 펼쳐진 여자 자유형 200m 준결승·결승전에 출전해 세계주니어기록을 세웠다. 지난 22일 1분55초99의 기록으로 세계주니어기록을 달성한 양 쥔시안은 다음날 진행된 결승에서는 전날 자신이 세운 기록을 0.56초 앞당겼다. 양 쥔시안은 이날 경기에서 5위를 차지했지만 연달아 세계주니어기록을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세계무대에 알렸다.

옌 쯔베이는 남자 접영 50m와 100m에서 아시아 기록을 5차례나 경신했다.

옌 쯔베이는 지난 21일 남자 평영 100m 준결승에서 아시아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2일 결승전에서는 전날 보다 0.04초 단축한 58초63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남자 평영 50m에 출전해 그는 예선전부터 아시아기록을 세웠고 준결승과 결승에서도 자신이 세운 아시아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중국은 25일 금 16개, 은 10개, 동 3개로 러시아(금 9개, 은 8개, 동 2개)를 제치고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남자 배영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쉬 지아위. /연합뉴스